

# 미국 대선 감상법

김영우/SBS라디오 방송국 PD

**미** 국 43대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재개표 파문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면대결로 장기화하고 있다. 언론의 속보경쟁과 여기에 따른 여러 번의 오보로 끝난 미국대선은 이렇게 됨으로써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인 플로리다 주는 벌써 분열의 양상이 보인다며 걱정이 태산이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최강국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거리를 주고 있다. 마치 목숨을 걸고 싸우는 두 권투선수를 미국의 많은 국민들이 지켜 보듯이 말이다. 이미 이전투구 양상을 보인 두 후보는 진정한 승자는 깨끗한 패자가 되었을 때 성립한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한때 1700여 표차로 벌어졌던 부시와 고어, 두 후보의 표차가 재검표 결과 327표로 줄어들었고 표본지역의 수검표에서는 288표까지 표차가 줄어들었다. 정보통신의 왕국이라는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후진국에서나 일어나는 실수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해 공화당의 부시 후보는 수검표 작업을 하게 되면 당락이 뒤바뀔 수 있다는 초조감에 민주주의를 법정애까지 끌고 가려 했다고 고어 후보를 비난하더니 정작 법원에 먼저 손을 벌린 신세가 되었다. 정말 이러다가 세계적인 망신은 물론 민주주의가 많이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하지만 우리가 미국의 대선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일은 미국의 헌정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미국 국민들은 놀랄만큼 침착하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장의 이해보다 좀더 멀리 미국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는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을 것이다.

수 백년을 지켜 오면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했던 헌법. 미국의 헌법은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고쳐지거나 일부 단체를 위해서 바뀌어진 적이 없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절차와 타협이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절차와 타협이 전제되지 않은 주장은 배척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미국 국민들은 일깨워 주고 있다.

세계 최강국의 위치를 미국이 누리고 있는 것도 우리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특정한 사람이나 일부 집단을 위해 우리 헌법은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런 헌법에 대해 우리 국민은 얼마나 신뢰를 보내고 있는지.

소인은 눈 앞의 이익을 탐한다고 했다. 미국의 대선을 보면서 그들의 허점이나 실수를 즐기려 하지 말고 그들이 허점이나 실수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메꾸어 가며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합의에 이르게 되는지 지켜 볼 일이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민주주의가 어차피 독자적이고 유일한 형식이 아니고 서구의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말이다.

